

## 말레이시아 - 체질 개선과 제품 특화로 경쟁력 강화

2003년 10월에 말레이시아의 국무총리에 취임한 아브두라 바디위는 “마히틸 노선의 계승”을 내걸면서 미묘한 독자적인 주장도 가미하여 안정된 정치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컨트리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섬유 산업은 임금이 높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체질 개선과 제품의 특화가 과제로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정치를 받치고 있다. 200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정부가 당초에 예상하였던 5.5~6.0%를 크게 웃돈 7.1%의 실적을 올렸다. 다만 고도 성장을 끌고 가던 제조업이 2004년 4/4분기에 수출을 중심으로 떨어졌다.

말레이시아의 통화, 링깃(ringgit)은 1US달러=3.8링깃으로 고정되어 왔었는데, 이 대미달러 고정 환율을 재검토한 것도 수출 부진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인민위엔이 절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위엔이 절상되면 링깃도 뒤따라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2004년 인가 외국 투자액은 2003년과 비교하여 약 4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들 외국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그런데 통화 절상으로 수출에서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은 더욱 식어버리게 된다. 인구가 2,572만명으로 적으며, 내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영향이 크다.

말레이시아의 섬유 산업은 수출의 비중이 크며, 극히 소수의 대기업과 대

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 인구가 적고 임금 수준이 높으며, IT·하이테크 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섬유 산업은 말레이시아 사람의 종업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도네시아 등의 주변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종업원의 30%까지 인정되고 있다.

구미 바이어들은 최근 중국 일변도의 수입에 따른 리스크를 염려하면서도 아직은 상황의 발전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으로서는 생산지가 크게 변경되는 일은 없겠으나 2005년 1월부터는 쿼터 프리 체제가 실시되면서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높은 말레이시아 섬유 산업은 새로운 시련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페난주(州) 중심으로 도레(東レ) 그룹이 섬유 및 비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다. 섬유 산업은, 폴리에스터·면 혼방을 주체로 하는 단섬유 직물의 방적·직포·염색 가공으로 일관 생산하고 있는 펜패브릭사(社)와 폴리에스터 솜을 생산하고 있는 펜파이버사(社)가 있다.

펜패브릭사는 월 생산 규모가 1,000만yd이고, 생산 체제를 통합 집약하고 구매 시스템을 개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력이 강한 근육질의 기업체로 개선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품을 강화하여 중국품과의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있다.

펜파이버사는 폴리에스터 솜의 월 생산량이 5천t이며, 슈퍼 브라이트(super bright)의 세섬도 봉사용 고강력 솜으로 특화하고 있다.

또한 도요보는 가네마쓰 및 가네마쓰섬유와의 합판으로 면 방직 사업을

페라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페라텍스타일밀즈사(PTM)와 도요보텍스타일말레이시아사(TTM)에서 생산한 방적사는 전량 자가 소비하여 생산된 생직물을 판매하고 있다. PTM은 침장·블라인드·심지용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TTM은 각종 통장, 북 커버와 일부는 행커치프용으로 일본으로만 수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요보가 전액 출자한 도요보올말레이시아는 게라주에서 100% 소모사와 특수 혼섬사 “울 마나드”를 일본 수출용으로 방적하고 있다. ♣